



코닥GCG코리아는 지난 1월 23일 그랜드힐튼호텔 플라밍고룸에서 2007년도 킷오프 미팅 및 구스타보 오비에도 아시아지역 본부 부사장 방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 “통합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확립”

코닥GCG코리아(대표 안희균)는 지난 1월 23일 그랜드힐튼호텔 플라밍고룸에서 2007년도 킷오프 미팅 및 구스타보 오비에도(Gustavo Oviedo) 아시아지역본부 부사장, 방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합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확립이라는 비전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구스타보 부사장을 비롯, 잭 위도프(Jack Wiethoff) 디지털플레이트 프리프레스소모품 분야 글로벌 프로덕트 리더, 스티브 그린(Steve Green) 아시아 지역 마케팅 비즈니스개발 분야 부사장, 안희균 코닥GCG 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안 대표는 “고객에 대해 집중(focus)하며 책임감(accountability)을 갖고 적절한 속도(speed)로 서비스하며 고객에 대한 신뢰(trust)를 획득할 수 있는 ‘one face to the customer’ 라는 코닥GCG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밝힌 후 “앞으로는 제품별이 아니라 출판, 포장, 신문, 상업, 데이터 센터 등 시장 분야별로 공략하는 한편, 인쇄 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기술과 서비스에서 고객들과 소통하는 통합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확립할 것이라는 코닥GCG의 비전”에

대해 밝혔다. 간담회에서 구스타보 부사장은 “개별적으로 훌륭한 인쇄기기 제조사였던 코닥과 크레오가 합병함으로써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얻는 한편, 오프셋 인쇄기와 후가공기기를 제외한 인쇄시장에 통용되는 모든 제품의 공급이 가능할 정도로 제품군을 확대했다”면서 “코닥은 기술적으로도 우수하지만 전세계 70여개국 1만여명의 우수 직원이 모여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 경쟁사와 차별될 수 있는 장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조직 재구성이 이뤄지고 있으며 디지털 분야의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2007년도에는 CTP 및 CTP판재, 디지털 솔루션 등이 성장의 주요 열쇠로 작용할 것이며 인쇄산업 내부적으로 구조적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닥GCG코리아는 디지털 장비 및 워크플로 서비스의 확충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흑백 컬러 디지털 인쇄기 출시, 디지털 인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향후에는 컬러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갑준 차장 kjcho@print.or.kr